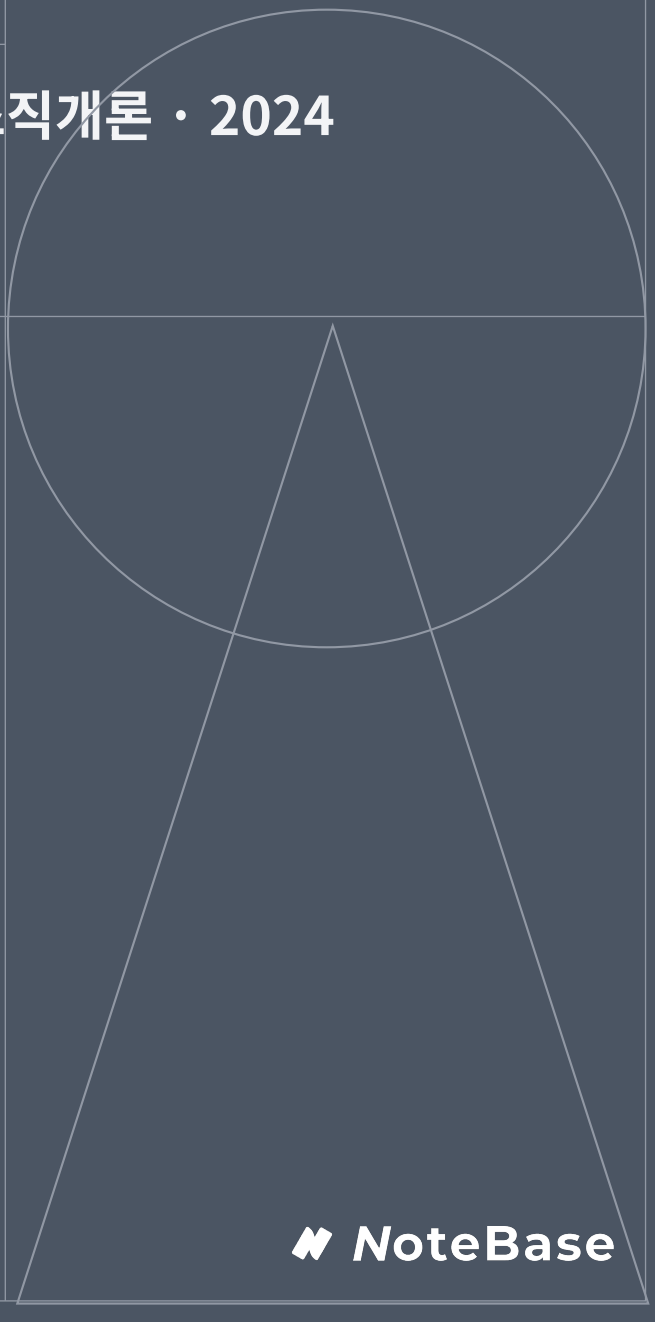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4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4

**공무원/지방직/9급 · 자료조직개론 · 2024**

**문 1.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의 분류체계에서 부(部)와 류(類)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① 경부(經部) - 유서류(類書類), 유가류(儒家類)

② 사부(史部) - 지리류(地理類), 목록류(目錄類)

③ 자부(子部) - 예술류(藝術類),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

④ 집부(集部) - 총집류(總集類), 시문평류(詩文評類)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유서류와 유가류는 모두 **자부(子部)**에 속한다. 경부는 유교 경전과 그 주석 등을 분류하는 부이므로, 유가의 저술을 모은 유가류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유서류(類書類)와 유가류(儒家類)는 **모두 자부에 속한다**. 유서류는 여러 문헌에서 뽑은 내용을 항목별로 모아 놓은 책을, 유가류는 유가의 사상과 학설을 다룬 저술을 분류한다. 경부는 유교 경전과 그 주석 등을 다루므로, 선지의 '경부'를 '자부'로 고쳐야 한다.

② O: 지리류(地理類)와 목록류(目錄類)는 모두 사부에 속한다. 사부는 역사 기록뿐 아니라 **지리와 문헌 목록에 관한 자료**도 포함한다. 지리류에는 지역과 산천 등에 관한 기록을, 목록류에는 서적의 목록 등에 관한 저술을 분류한다.

③ O: 예술류(藝術類)와 천문산법류(天文算法類)는 모두 자부에 속한다. 자부는 제자백가의 사상서에 더하여 **각종 학술·기술 분야의 저술**도 포함한다. 예술류는 서화·음악 등 예술에 관한 저술을, 천문산법류는 천문과 수학에 관한 저술을 분류한다.

④ O: 총집류(總集類)와 시문평류(詩文評類)는 모두 집부에 속한다. 집부는 시문 등 문학에 관한 저술을 분류한다. 총집류는 **여러 사람의 시문을 모은 문집**을, 시문평류는 시와 산문에 대한 비평·이론을 다룬 저술을 포함한다.

NoteBase

**문 2. 서가분류와 서지분류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가분류는 자료의 물리적 위치 배열에 필요한 분류로 배가분류라고도 한다.

② 서가분류는 복수주제의 다면적 표현이 용이한 분류이다.

③ 서지분류는 서지작성을 목적으로 하며 서가분류에 앞서 개발되었다.

④ 서지분류는 고정식, 순차적 배열법을 기반으로 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서가분류는 자료를 서가의 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므로 **복수주제의 다면적 표현에 제약**이 있다. 한 자료를 여러 주제 아래에서 표현하기 쉬운 것은 실물 대신 서지정보를 조직하는 **서지분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가분류는 자료를 서가상에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물리적 위치를 정하고, 이용자가 자료를 찾도록 하는 분류이다. 자료를 서가에 꽂아 배열한다는 뜻에서 **배가분류**라고도 한다.

② X: 서가분류에서는 한 자료를 **서가의 한 위치에 배치**해야 하므로, 여러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각 주제의 위치에 동시에 놓기 어렵다. '복수주제의 다면적 표현이 용이한 분류'는 서지분류에 해당한다. 서지분류는 실물이 아닌 서지정보를 조직하므로 같은 자료를 여러 주제 아래에 나타낼 수 있다.

③ O: 서지분류는 자료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서지를 작성**하기 위한 분류이다. 고대부터 서지 작성에 활용되었으며, 근대에 자료의 서가상 배열을 위해 본격적으로 발달한 서가분류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④ O: 전통적인 서지분류는 **책자형 서지**를 전제로 한다. 책자에 수록된 서지항목은 인쇄된 순서와 위치가 고정되므로 고정식·순차적 배열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자료 사이의 주제 관계에 따라 서가상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서가분류의 상관식 배열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3. 자료분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LCC에서는 주제를 세분할 때 분류기호의 일부로 커터 (Cutter) 번호를 사용하여 전개하기도 한다.
ㄴ. Brown의 SC(Subject Classification)에서는 주제 간 합성이 불가능하며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한 순수기호법을 사용한다.
ㄷ. CC는 기본적으로 학문에 의한 분류표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ㄹ. LCC는 주류표마다 수정·보완하는 책임자가 다르고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특수분류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LCC의 커터 번호는 저자 구별뿐 아니라 **주제 세분**에도 사용된다. 또한 분야별 분류표가 독립적으로 개발·개정되므로 **특수분류표의 집합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보기별 해설**

ㄱ. O: LCC에서는 커터 번호를 **분류기호의 일부**로 사용하여 특정 주제를 더 세분하기도 한다. 따라서 커터 번호를 같은 주제 안에서 저자나 서명을 구별하는 도서기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ㄴ. X: Brown의 SC는 **주제 간 합성이 가능**하여, 주제의 분류기호들을 결합해 복합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 등을 함께 쓰므로 순수기호법이 아니라 **혼합기호법**을 사용한다.

ㄷ. X: CC가 기본적으로 학문에 따라 지식을 구분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배열 순서는 **자연과학·기술 → 인문과학 → 사회과학**이다. 문학·언어·철학 등의 인문과학이 정치학·경제학·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보다 먼저 배치되므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ㄹ. O: LCC 전체는 여러 지식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분류법이지만, 각 주류표는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개발·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이처럼 분야별 분류표마다 전개 방식과 개정 시기가 달라 특수분류표의 집합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옳은 보기는 ㄱ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4. 자료의 분류규정에 근거하여 분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미학: 박경리 소설 비평』은 『토지』와 함께 분류한다.

② 『조선왕조 500년 왕들의 이야기』는 조선 왕들의 전기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 '한국사' 아래에 분류한다.

③ 『교육재정과 영재교육』은 교육재정 감소로 인한 영재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 '교육재정'에 분류한다.

④ 『베토벤 서간집』은 '베토벤 전기'에 분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미친 영향을 다룬 자료는 **영향을 받은 주제**에 분류한다. 교육재정 감소가 영재교육에 미친 영향을 다루므로 '교육재정'이 아니라 **'영재교육'**에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특정 문학작품에 관한 비평서는 **비평 대상인 작품과 같은 분야**에 분류한다. 『토지의 미학: 박경리 소설 비평』은 『토지』를 비평하는 자료이므로 『토지』와 함께 분류한다.

② O: **왕이나 국가원수의 전기**는 해당 국가의 역사에 분류한다. 조선 왕들의 생애를 다룬 『조선왕조 500년 왕들의 이야기』는 한국사 아래에 분류한다.

③ X: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다룬 자료는 **영향을 받은 주제**에 분류한다. 여기서 교육재정 감소는 영향을 주는 원인이고, 영재교육은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따라서 『교육재정과 영재교육』은 '교육재정'이 아니라 '영재교육'에 분류한다.

④ O: 서간집은 편지를 모은 자료이며, **문학가가 아닌 인물의 서간집**은 그 인물의 개인 전기로 분류한다. 베토벤은 음악가이므로 『베토벤 서간집』은 '베토벤 전기'에 분류한다.

NoteBase

**문 5. KDC 제6판에 따라 분류기호를 조합할 때 표준구분표 적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표: 190, 표준구분표: -09

② 본표: 410, 표준구분표: -01

③ 본표: 440, 표준구분표: -04

④ 본표: 713, 표준구분표: -03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713은 본표에서 이미 **한국어 사전**을 나타낸다. 여기에 사전을 뜻하는 표준구분 -03을 다시 붙이면 같은 형식을 중복하여 표현하므로, 한국어 사전은 713에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190은 윤리학이고, 표준구분 -09는 역사 및 지역구분이다. 윤리학의 발전 과정이나 역사를 다루는 자료에 -09를 적용하면 **윤리학사**를 나타낼 수 있다.

② O: 410은 수학이고, 표준구분 -01은 철학 및 이론이다. 수학의 철학적 기초나 이론을 다루는 자료에 적용하므로 **주제인 수학과 그 이론적 취급**을 함께 나타내는 조합이다.

③ O: 440은 천문학이고, 표준구분 -04는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이다. 천문학에 관한 강연이나 수필을 모은 자료에 적용하여 **주제와 자료의 형식**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

④ X: 713은 언어공통구분의 -3인 사전이 이미 반영된 한국어 사전의 본표 기호이다. 표준구분 -03도 사전을 뜻하므로 이를 다시 부가하면 **사전이라는 형식이 중복**된다. 한국어 사전을 분류할 때는 -03을 덧붙이지 않고 본표의 713을 사용한다.

NoteBase

**문 6. KDC 제6판의 본표와 해설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380 풍습, 예절, 민속학
388 민속학
.1 민속문학
구비문학, 설화, 전설, 무가 등을 포함한다.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예: 남미전설 388.15
민속을 바탕으로 한 본격문학작품은 800의 해당주제 아래에 분류한다.
신화 → 219; 불교설화 → 224.4;
기독교설화 → 234.4; 판소리 → 679.312

810 한국문학
811 시
812 희곡
813 소설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20세기 1910-1999
.7 21세기 2000-
.8 동화

지역구분표
-1 아시아
-11 대한민국
-12 중국
-14 동남아시아
-141 베트남
-142 라오스
-143 캄보디아

해설서
388.1 민속문학
▷ 구비문학, 설화, 전설 등의 민속문학은 388.1에 분류한다.
▷ 전설, 민담, 설화 등으로서 작가의 한 작품의 테마가 된 것은 창작된 문학형식 아래에 분류한다.
▷ 전설, 민담, 설화를 번안 개작한 것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문학과 함께 분류한다.

NoteBase

① 서명: 『조선설화 자료집』, 분류기호: 388.111

② 서명: 『배비장: 민담으로 전해진 조선후기 해학소설』, 분류기호: 813.5

③ 서명: 『불교 설화』, 분류기호: 224.4

④ 서명: 『어린이를 위해 다시 쓴 고려시대 민담과 설화』, 분류기호: 813.4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자료는 고려시대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어린이를 위해 번안·개작한 동화**이므로 813.8에 분류한다. 이야기의 시대만 보고 고려시대 소설을 뜻하는 813.4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설화 자료집'은 설화를 모은 민속문학 자료이므로 388.1에 분류한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지역구분기호 -11**을 붙이면 388.111이 된다. 서명에 '조선'이 있어도 설화 자료집 자체를 조선시대 소설로 분류하지 않는다.

② O: '배비장: 민담으로 전해진 조선후기 해학소설'은 민담과 관련되어 있어도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을 갖춘 작품이다. 제시된 해설서는 민담·설화 등이 작품의 테마가 된 경우 창작된 문학형식 아래에 분류하도록 하므로, 한국소설 813 아래 조선시대인 813.5를 적용한다.

③ O: 제시된 본표는 일반적인 민속문학의 분류기호인 388.1과 별도로 **불교설화를 224.4로 분류**하도록 지시한다. 따라서 '불교 설화'에는 388.1이 아니라 224.4를 적용한다.

④ X: '어린이를 위해 다시 쓴 고려시대 민담과 설화'는 민담·설화를 아동 대상으로 번안·개작한 자료이다. 제시된 해설서에 따라 아동문학과 함께 분류해야 하므로 **동화인 813.8**을 적용한다. 813.4는 고려시대 소설의 분류기호이므로, 원래 이야기의 시대를 기준으로 이 자료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NoteBase

**문 7. KDC 제6판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류했을 때 조기표 적용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떠먹여 주는 한국어 문법』-715
ㄴ. 『만화로 보는 기독교 포교법』-236
ㄷ. 『영어 어휘 길들이기』-742
ㄹ. 『화엄경: 진리의 말씀』-223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한국어 문법은 언어공통구분표의 **-5(문법)**를 적용하여 715로, 불교 경전인 『화엄경』은 종교공통구분표의 **-3(경전·성전)**을 적용하여 223으로 분류한다.

**보기별 해설**

ㄱ. O: 『떠먹여 주는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의 문법을 다룬 자료이다. 한국어의 기본기호 71에 언어공통구분표의 **-5(문법)**를 결합하므로 715가 된다.

ㄴ. X: 『만화로 보는 기독교 포교법』은 기독교의 포교·전도 활동을 다룬 자료이다. 기독교의 기본기호 23에 종교공통구분표의 **-5(선교·포교·전도·교화 활동)**를 결합한 235로 분류해야 한다. 제시된 236은 교회론에 해당한다.

ㄷ. X: 『영어 어휘 길들이기』는 영어 어휘를 다룬 자료이다. 영어의 기본기호 74에 언어공통구분표의 **-4(어휘)**를 결합한 744로 분류해야 한다. 제시된 742는 -2(어원·어의)를 적용한 기호로, 영어의 어원과 어의를 다룬 자료에 해당한다.

ㄹ. O: 『화엄경: 진리의 말씀』은 불교 경전이다. 불교의 기본기호 22에 종교공통구분표의 **-3(경전·성전)**을 결합하므로 223이 된다.

조기표 적용이 옳은 보기는 ㄱ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DDC 제23판으로 분류할 경우, 분류기호의 조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명: 『교육학 연구방법』, 분류기호 조합: 370(Education)+(-0721)(T1의 연구방법)=370.721

② 서명: 『농학사』, 분류기호 조합: 630(Agriculture and related technologies)+(-09)(T1의 역사)=630.9

③ 서명: 『영국문학전집』, 분류기호 조합: 820(English and old English literatures)+(-08)(T1의 전집)=820.8

④ 서명: 『예술 이론』, 분류기호 조합: 700(Arts)+(-01)(T1의 이론)=700.1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T1의 전집'이 잘못되었다. 영국문학전집의 집성 기호는 **문학작품의 세분에 쓰는 T3B의 -08**에서 가져오며, 본표의 지시에 따라 820.8을 구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370은 교육학이며, T1의 -0721은 연구방법을 나타낸다. 『교육학 연구방법』은 교육학 자체의 역사가 아니라 **교육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다루므로, 교육학 기호에 이 표준구분을 적용한 370.721이 적합하다.

② O: 630은 농업 및 관련 기술을 나타내며, T1의 -09는 역사적·지리적 취급 등에 사용하는 표준구분이다. 『농학사』는 **농학의 역사**를 다루므로 이 표준구분을 적용한 630.9로 분류한다.

③ X: 820.8이라는 결과보다 'T1의 전집'이라는 보조표의 출처가 잘못되었다. T1의 -08은 사람집단에 관한 표준구분이며, 문학전집의 집성을 뜻하지 않는다. 여러 저자의 문학작품을 모은 전집에는 **T3B의 -08(집성)**을 사용한다. 『영국문학전집』은 영국문학 820에 본표의 합성 지시를 적용하여 820.8로 구성하므로, 선지의 'T1의 전집'을 'T3B의 집성'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700은 예술이며, T1의 -01은 철학과 이론을 나타낸다. 본표에서는 예술 전반의 표준구분을 **700.1~700.9**에 전개하므로, 『예술 이론』은 철학과 이론에 해당하는 700.1로 분류한다.

NoteBase

## 문 9. DDC 제23판의 본표와 보조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를 적용한 분류기호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523.3 | Moon |
| .31 | Constants and dimensions<br>Including gravity, size, mass |
| .32 | Optical, electromagnetic, radioactive, thermal phenomena |
| .33 | Orbit and motions |
| .38 | Eclipses |
| .4 | Planets, asteroids, trans-Neptunian objects of solar system |
| |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planets, asteroids, trans-Neptunian objects of solar system together, for planets of solar system alone |
| | Add to notation for each number identified by * the numbers following 523.3 in 523.31-523.33 |
| .41 | *Mercury |
| .42 | *Venus |
| .44 | Asteroids<br>Including Ceres |
| *Add as instructed under 523.4 | |

Table 1. Standard Subdivisions

| | |
|---|---|
| -03 |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
| -09 | History |

① 서명: 『Dictionary of Ceres』, 분류기호: 523.44

② 서명: 『History of Planet of Solar System』, 분류기호: 523.409

③ 서명: 『Dictionary of Mercury Gravity』, 분류기호: 523.41103

④ 서명: 『History of Orbit of Venus』, 분류기호: 523.42309

**정답 3번**

### 간단한 해설

③의 중력은 'Including'에 열거된 세부 주제이므로 **사전을 나타내는 표준구분 -03을 덧붙일 수 없다**. 수성의 기호 523.41에 중력을 포함하는 상수·차원의 세분기호 1만 연결한 **523.411**로 분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된 본표에서 세레스(Ceres)는 523.44 소행성 아래의 'Including'에 열거되어 있다. 이는 소행성 전체보다 좁은 세부 주제를 해당 기호에 포함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주제에는 **표준구분을 부가할 수 없다**. 따라서 세레스에 관한 사전이라도 -03을 붙이지 않고 523.44로 분류한다.

② O: 523.4의 주기는 태양계의 행성·소행성·해왕성 바깥 천체를 함께 다룬 자료뿐 아니라 **태양계 행성만 다룬 자료에도 표준구분을 부가**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태양계 행성의 역사에는 523.4 뒤에 보조표 1의 역사 기호 -09를 연결하여 523.409를 부여한다.

③ X: 수성의 기호 523.41에는 별표가 있으므로 523.4의 지시에 따라 523.31~523.33에서 523.3 뒤에 오는 기호를 가져와 세분할 수 있다. 중력은 523.31의 상수·차원 아래 'Including'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수성의 기호에 세분기호 1을 연결하여 523.411로 분류한다. 그러나 중력은 상수·차원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가 아니므로 **사전의 표준구분 -03은 부가할 수 없다**. 따라서 523.41103은 523.411로 고쳐야 한다.

④ O: 금성의 기호 523.42에도 별표가 있으므로 523.4의 세분 지시를 적용한다. 궤도는 523.33의 'Orbit and motions'에 해당하므로 523.3 뒤의 기호 3을 가져와 **금성의 궤도 기호 523.423**을 만든다. 궤도는 'Including'에 열거된 주제가 아니므로 역사 기호 -09를 이어 붙일 수 있으며, 최종 기호는 523.42309이다.

NoteBase

**문 10. 리재철 저자기호표(순한글도서기호표, 제5표)를 적용하여 전기도서인 『백범 김구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독립운동의 큰 별 / 김종렬 글 ; 이경석 그림』의 도서기호를 작성할 때 옳은 것은?**

| 자음기호 | | 모음기호 | | | |
|---|---|---|---|---|---|
| | |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 | | 초성이 ㅊ인 글자 | |
| ㄱ ㄲ | 1 | ㅏ | 2 | ㅏ(ㅐ ㅑ ㅒ) | 2 |
| ㄴ | 19 | ㅐ(ㅑ ㅒ) | 3 | ㅓ(ㅔ ㅕ ㅖ) | 3 |
| ㄷ ㄸ | 2 | ㅓ(ㅔ ㅕ ㅖ) | 4 | ㅗ(ㅘ ㅙ ㅚ ㅛ) | 4 |
| ㄹ | 29 | ㅗ(ㅘ ㅙ ㅚ ㅛ) | 5 | ㅜ(ㅝ ㅞ ㅟ ㅠ ㅡ ㅢ) | 5 |
| ㅁ | 3 | ㅜ(ㅝ ㅞ ㅟ) | 6 | ㅣ | 6 |
| ㅂ ㅃ | 4 | ㅡ(ㅢ) | 7 | | |
| ㅅ ㅆ | 5 | ㅣ | 8 | | |
| ㅇ | 6 | | | | |
| ㅈ ㅉ | 7 | | | | |
| ㅊ | 8 | | | | |
| ㅋ | 87 | | | | |
| ㅌ | 88 | | | | |
| ㅍ | 89 | | | | |
| ㅎ | 9 | | | | |

① 김16김

② 김16ㅂ

③ 김75김

④ 김75ㅂ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전기도서는 **피전자 김구**를 기준으로 기호화하고, 뒤에 글쓴이 김종렬의 성을 붙인다. '구'의 ㄱ과 ㅜ는 제5표에서 각각 1과 6이므로 도서기호는 **김16김**이 된다.

NoteBase

**공통 해설**

전기도서의 도서기호는 **피전자의 성과 이름을 기호화한 뒤 전기를 쓴 저자의 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피전자는 책에서 생애를 다루는 인물이다. 이 책에서는 김구가 피전자이고, 김종렬이 글쓴이이므로 김구를 기준으로 기호화하고 끝에 '김'을 붙인다. 그림을 그린 이경석의 성이나 서명 '백범'의 첫 자음은 이 자리에 쓰지 않는다.

김구의 성 '김'을 그대로 적고, 이름 '구'의 초성 ㄱ과 중성 ㅜ를 표에서 찾는다. 자음기호 ㄱ은 1이고,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에 적용하는 모음기호 ㅜ는 6이므로 두 숫자를 차례로 적으면 16이다. 여기에 글쓴이의 성을 붙여 도서기호는 '김16김'이 된다. 75는 김종렬의 '종'에서 ㅈ과 ㅗ를 기호화한 값이므로 피전자 기준에 맞지 않으며, 끝의 'ㅂ'도 전기 저자의 성을 붙이는 규칙에 맞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Dublin Core의 기본 데이터 요소 중 물리적 기술요소(instantiation)에 해당하는 것은?**

① Description

② Language

③ Source

④ Type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Language는 자원의 지적 내용이 표현된 **언어**를 기록하며, Dublin Core의 요소 구분에서는 **물리적 기술요소(instantiation)**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Description은 초록·목차 등으로 **자원의 내용을 설명**하는 요소이다. 물리적 기술요소가 아니라 내용요소에 속한다.

② O: Language는 자원의 지적 내용에 사용된 언어를 나타낸다. 언어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내용과 관련되지만, Dublin Core의 요소 분류에서는 **물리적 기술요소**에 속한다. 이 범주에는 Date·Format·Identifier·Language가 포함된다.

③ X: Source는 현재 자원이 전체 또는 일부를 바탕으로 삼아 만들어진 **원천 자원에 대한 참조**를 기록한다. 자원의 내용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나타내므로 내용요소로 분류된다.

④ X: Type은 자원 내용의 성격이나 장르를 나타내는 **내용요소**이다. 텍스트·이미지·소리 등의 유형을 기록하며, 자원의 물리적·디지털 구현 형식을 기록하는 Format과 구별한다. 물리적 기술요소에 속하는 것은 Format이다.

NoteBase

**문 12. BIBFRAME 2.0 모델의 핵심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별자료(item)

② 인스턴스(instance)

③ 저작(work)

④ 전거(authority)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전거(Authority)는 BIBFRAME 1.0에 있던 클래스로, **2.0에서는 폐지되었다**. BIBFRAME 2.0의 핵심 상위 클래스는 **저작(Work)·인스턴스(Instance)·개별자료(Item)**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별자료(Item)는 인스턴스에 속하는 **실제 개별 사본**을 나타내는 핵심 클래스이다. 물리적 사본과 전자적 사본을 모두 포함하며, 소장 위치·청구기호·바코드 등의 정보를 기술한다. 같은 판본의 책 두 권을 소장한다면 각 권은 별개의 개별자료이다.

② O: 인스턴스(Instance)는 저작이 **특정한 발행 형태로 구현된 것**을 나타내는 핵심 클래스이다. 발행자·발행지·발행일·자료의 형태 등을 기술한다. 개별 소장본을 구분하는 Item과 달리, 그 사본들이 속하는 발행 형태를 나타낸다.

③ O: 저작(Work)은 자료의 **개념적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추상적인 핵심 클래스이다. 저자·언어·주제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하나의 저작은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로 구현될 수 있다.

④ X: 전거(Authority)는 BIBFRAME 1.0의 클래스였으나 **2.0에서는 폐지되었으므로** 핵심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2.0의 핵심 상위 클래스는 저작·인스턴스·개별자료의 세 가지이다.

NoteBase

**문 13. MODS 메타데이터의 20개 상위 요소에 속하는 것만 나열한 것은?**

① accessCondition, extension, identifier, location, part, recordInfo

② accessCondition, extension, location, part, source, recordInfo

③ genre, identifier, name, relationInfo, titleInfo, typeOfResource

④ genre, language, name, relationInfo, titleInfo, typeOfResourc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MODS는 자료의 식별·위치·부분정보뿐 아니라 **접근·이용 조건(accessCondition), 확장정보(extension), 레코드정보(recordInfo)**도 상위 요소로 둔다. identifier, location, part 역시 각각 식별자, 위치정보, 부분정보를 나타내는 상위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나열된 여섯 요소는 모두 MODS의 상위 요소이다. accessCondition은 자료의 접근 제한이나 이용·복제 조건, extension은 MODS에 정의되지 않은 추가 정보, identifier는 ISBN·DOI와 같은 자료 식별자를 기록한다. location은 소장 위치나 접근 URL, part는 권·호·쪽 범위 등 자료의 특정 부분에 관한 정보, recordInfo는 레코드 작성기관·작성일·수정일 등 **메타데이터 레코드 자체의 관리정보**를 기록한다.

② X: accessCondition, extension, location, part, recordInfo는 상위 요소이지만, **source는 상위 요소가 아니다**. source를 자료 식별자를 나타내는 identifier로 바꾸면 모두 상위 요소가 된다. 레코드 작성기관 등 메타데이터의 출처는 recordInfo 아래의 recordContentSource에 기록한다.

③ X: genre, identifier, name, titleInfo, typeOfResource는 상위 요소이지만, relationInfo는 상위 요소명이 아니다. 관련 자료를 기술하는 상위 요소의 정확한 명칭은 **relatedItem**이다. 따라서 relationInfo를 relatedItem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genre, language, name, titleInfo, typeOfResource는 상위 요소이지만, relationInfo는 포함되지 않는다. language는 자료의 언어를 나타내는 상위 요소이고, 관련 자료 정보는 **relatedItem**으로 기술한다. 이 선지에서도 relationInfo를 relatedItem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4. AACR2를 적용한 목록에서 표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제면에 원저작을 다른 문학형식으로 개작 또는 각색한 저자가 원저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작자나 각색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② 표제면에 비평적 전기의 작가가 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전기의 작가를 기본표목으로 하며, 피전자는 부출표목으로 한다.

③ 표제면에 원저자와 번역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④ 표제면에 종합표제가 기재되어 있는 두 저자의 합집은 첫 번째 저작의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첫 번째 저작의 저자'는 **종합표제가 없는 합집**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서로 다른 두 저자의 저작을 모은 합집에 종합표제가 있으면 **종합표제**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원저작을 소설에서 희곡으로 바꾸는 것처럼 다른 문학형식으로 개작·각색하면, 개작자나 각색자의 창작 책임을 인정하여 **개작자·각색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원저자가 표제면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② O: 비평적 전기에서 표제면에 전기 작가가 저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전기를 집필한 책임에 따라 **전기 작가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전기의 대상 인물인 피전자는 부출표목으로 삼는다. 전기 작가가 저자가 아니라 편자 등으로 표시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③ O: 번역은 원저작의 언어를 바꾼 것이므로 **원저작에 해당하는 표목**으로 기본기입한다. 선지처럼 원저자가 밝혀진 번역서는 원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며, 원저자와 번역자가 표제면에 함께 기재되었다고 해서 번역자가 기본표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X: 서로 다른 저자들의 독립된 저작을 모은 합집에 종합표제가 있으면, AACR2 21.7B1에 따라 **종합표제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따라서 '첫 번째 저작의 저자'를 '종합표제'로 고쳐야 한다. 첫 번째 저작에 해당하는 표목으로 기본기입하는 것은 종합표제가 없는 합집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NoteBase

**문 15. KCR 제4판을 적용하여 자료의 본표제에 기재된 내용을 전사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본표제 | 전사 |
| --- | --- |
| ㄱ. Looser takes all (Looser는 Loser의 오기임) | Looser[i.e. Loser] takes all |
| ㄴ.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Retrieval |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Retrieval |
| ㄷ. The Third Wave | The 3rd wave |
| ㄹ. The world in anger (anger는 danger의 오기임) | The world in [d]anger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잘못 인쇄된 단어는 **원래 표기를 남기고 [i.e. 바른 형태]를 덧붙이며**, 빠진 글자는 **해당 위치에 각괄호로 보완**한다. 따라서 오자를 보충 설명한 경우와 누락된 글자만 끼워 넣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오기는 자료에 나타난 형태를 그대로 옮긴 뒤 바른 형태를 각괄호 안에 보충할 수 있다. 따라서 'Looser'를 지우고 'Loser'로 바꾸는 대신 **'Looser[i.e. Loser]'**로 적은 전사는 규칙에 맞는다.

ㄴ. X: 영문 본표제는 자료의 대문자 표기를 모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첫 단어와 고유명사 등의 대문자 표기 규칙**을 적용한다. 여기서 Organization과 Retrieval은 일반명사이므로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retrieval'로 전사한다.

ㄷ. X: 본표제에 포함된 수 표현은 자료에 나타난 형태를 유지하므로 **'Third'를 '3rd'로 바꾸지 않는다**. 영문 대문자 표기 규칙까지 적용하면 'The third wave'로 전사한다.

ㄹ. O: 빠진 글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누락된 위치에 그 글자를 각괄호로 묶어 보충**한다. 'anger'는 'danger'에서 d가 빠진 것이므로 'The world in [d]anger'로 적는다. 각괄호는 d가 자료 자체에는 없고 목록 작성자가 보충한 글자임을 나타낸다.

옳은 전사는 ㄱ과 ㄹ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합은 ②이다.

NoteBase

**문 16.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다음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을 KCR 제4판을 적용하여 기술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저자 | 저작 |
|---|---|
| 김유정 | 봄봄, 동백꽃 |
| 김동인 | 배따라기 |
| 황순원 | 별 |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

① 김유정의 두 저작을 수록한 합집 - 봄봄 ; 동백꽃 / 김유정

② 김동인과 황순원의 개별저작을 수록한 합집 - 배따라기 / 김동인. 별 / 황순원

③ 김동인, 황순원, 현진건의 개별저작을 수록한 합집 - 배따라기 ; 별 ; 운수 좋은 날 / 김동인. [외]

④ 김유정, 김동인, 황순원, 현진건의 개별저작을 수록한 합집 - 봄봄 / 김유정. [외]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서로 다른 세 저자의 개별저작은 **각 표제와 해당 저자를 짝지어** 기술한다. 표제들을 쌍반점으로 연결하고 책임표시를 '김동인. [외]'로 줄이지 않고, 각 저작의 책임표시를 밝혀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봄봄'과 '동백꽃'은 모두 김유정의 저작이다. **동일 저자의 개별표제는 쌍반점( ; )으로 연결**하고, 마지막 표제 다음에 공통 책임표시를 기재하므로 '봄봄 ; 동백꽃 / 김유정'으로 기술한다.

② O: '배따라기'의 저자는 김동인이고, '별'의 저자는 황순원이다. 저자가 다른 개별저작은 **표제와 책임표시를 각각 짝지어** 기술하고, 한 저작의 책임표시와 다음 저작의 표제 사이는 온점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배따라기 / 김동인. 별 / 황순원'으로 기술한다.

③ X: 김동인·황순원·현진건의 저작을 동일 저자의 저작처럼 쌍반점으로 묶고, 책임표시를 생략한 것이 잘못이다. 세 저자의 합집에서는 **각 저자의 저작과 책임표시를 각각 밝혀** '배따라기 / 김동인. 별 / 황순원. 운수 좋은 날 / 현진건'으로 기술한다.

④ O: 종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네 저자 이상의 합집**은 필요에 따라 처음 열거된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만 기재하고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저작인 '봄봄'과 저자 김유정을 기술한 다음 '. [외]'를 붙이므로 '봄봄 / 김유정. [외]'로 기술할 수 있다.

NoteBase

**문 17.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서지레코드를 기술할 때 (가)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음)**

245 ▼aRomeo and Juliet ; ▼aKing Lear ; ▼aMacbeth / ▼dby William Shakespeare
260 ▼aNew York : ▼bMarcel Dekker,▼c2010
300 ▼a435 p. : ▼bill. ; ▼c24 cm
(가) ▼aShakespeare, William
(나) ▼aKing Lear
(나) ▼aMacbeth

① (가): 700
(나): 700
② (가): 700
(나): 740
③ (가): 710
(나): 700
④ (가): 710
(나): 74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King Lear'와 'Macbeth'는 종합표제 없이 함께 수록된 저작 중 첫 번째 표제 뒤에 나오는 개별 표제이므로 **740의 분출표제**로 기술한다. 저자 개인명을 기술하는 700과 구별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700: 'Shakespeare, William'은 책임표시의 'by William Shakespeare'에 해당하는 저자 개인명이다. 개인명을 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필드는 **700(부출표목-개인명)**이다. 710은 단체명 부출표목에 사용하는 필드이므로 이 개인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740: 245 필드에는 'Romeo and Juliet', 'King Lear', 'Macbeth'가 각각 ▼a로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종합표제 없이 여러 저작의 표제를 나열한 경우, **첫 번째 표제에 이어 나오는 저작의 표제**를 740(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 표제)에 기술한다. 따라서 'King Lear'와 'Macbeth'에는 각각 740을 사용한다. 여기서 비통제란 표제를 전거파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항목의 ▼a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명이 아니라 작품의 표제이므로 700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는 700, (나)는 740이므로 ②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KORMARC 형식(통합서지용, 2014 개정판)을 적용하여 주제명 부출표목을 작성할 때 표시기호(Tag)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고려하지 않음)**

① 611 ☒ a한국호텔경영자회의 ☒ n(5차 : ☒ d1999 : ☒ c제주)

② 630 ☒ a불전. ☒ p화엄경 ☒ x해설

③ 650 ☒ a음악 ☒ x대중가요 ☒ y2000-2010 ☒ z한국

④ 651 ☒ a지역문화 ☒ x육성방안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지역문화'는 특정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주제명**이므로 650 필드에 기술한다. 651은 한국·제주 같은 **지명**을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할 때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611은 **회의명**을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필드이다. '한국호텔경영자회의'는 회의명이며, ☒a에는 회의명, ☒n에는 회차인 '5차', ☒d에는 개최연도인 '1999', ☒c에는 개최장소인 '제주'를 기술한다.

② O: 630은 **통일표제**를 주제명부출표목으로 기술하는 필드이다. ☒a의 '불전'과 ☒p의 권차표제 '화엄경'으로 대상 경전을 나타내고, ☒x의 일반세목 '해설'로 그 경전을 다루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③ O: 650은 일반주제명을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a에 '음악'을 기술할 수 있다. '대중가요'는 ☒x의 일반세목, '2000-2010'은 ☒y의 시대세목, '한국'은 ☒z의 지리세목이다. **지리세목이 붙어도 중심 표목이 일반주제명**이므로 650을 사용한다.

④ X: 651은 지명을 기술하는 필드인데, '지역문화'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문화를 가리키는 일반주제명이다. 따라서 표시기호를 **651에서 650으로** 고쳐 '650 ☒a지역문화 ☒x육성방안'으로 기술한다. '육성방안'은 지역문화의 특정 측면을 나타내는 일반세목이므로 ☒x를 사용한다.

NoteBase

**문 19. FRB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지적 세계를 개체, 속성, 관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모형화한 다음 서지레코드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제시하였다.

② 표제, 형식, 일자는 제1집단에 속한 개체의 속성이다.

③ 제2집단은 지적 예술적 창작물의 주제를 나타내는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네 개 개체로 구분된다.

④ 이용자 과업에는 탐색(find), 식별(identify), 선택(select), 입수(obtain)의 4개가 설정되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개념·대상·사건·장소는 창작물의 주제를 나타내는 **제3집단**의 개체이다. 제2집단은 창작물의 내용·제작·배포·소장 등에 책임을 지는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FRBR은 서지적 세계를 **개체·속성·관계**로 모형화하고, 이용자 과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지 데이터 요소를 제시한다. 개체는 기술 대상, 속성은 그 대상의 특성, 관계는 대상 사이의 연결이다. 예를 들어 저작과 개인은 개체이고, 저작의 표제는 속성이며, 개인이 저작을 창작했다는 연결은 관계이다.

② O: 제1집단은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로 구성된다. 표제·형식·일자는 이 집단에 속한 개체를 기술하는 속성이다. 특히 **저작의 표제·저작의 형식·저작의 일자**가 저작의 속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 작품의 명칭, 소설·시 같은 유형, 원래 창작된 시점 등을 나타낸다.

③ X: 개념·대상·사건·장소는 **제2집단이 아니라 제3집단**의 개체이다. 제3집단은 저작의 주제가 되는 추상적 관념, 물질적 대상, 사건, 위치 등을 나타낸다. 제2집단은 개인과 단체이며, 제1집단 개체의 지적·예술적 내용, 물리적 제작·배포 또는 소장에 책임을 지는 주체를 나타낸다.

④ O: FRBR의 이용자 과업은 **탐색·식별·선택·입수**의 네 가지이다. 탐색은 검색 조건에 맞는 개체를 찾는 것, 식별은 찾던 개체인지 확인하거나 비슷한 개체를 구별하는 것, 선택은 내용·형식 등이 필요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 입수는 구입·대출하거나 전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20. KCR 제4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자책 기술규칙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책의 기술에는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인쇄된 단행본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전자책의 경우에는 인쇄된 단행본의 발행사항을 기술하고, 전자책의 발행사항은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③ 전자책에 둘 이상의 독립된 총서표제가 기재된 경우에는 대표 총서사항을 원괄호(( )) 안에 기술한다.

④ 전자책의 특정자료종별과 수량은 기술하지 않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KCR 제4판은 전자책의 **단행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일유형 등 전자자료로서의 특성은 **시스템조건에 관한 주기**에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자책에는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행본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며, 파일유형·파일크기 등 전자자료 고유의 특성은 시스템조건에 관한 주기에 기술한다.

② X: 인쇄된 단행본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했더라도 기술 대상은 전자책이다. 따라서 **전자책의 발행사항을 발행사항에** 기술하고, 인쇄된 단행본의 발행사항은 주기사항에 기술한다. 선지는 전자책과 인쇄 원본의 기술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

③ X: 둘 이상의 독립된 총서표제가 있으면 대표 총서 하나만 골라 기술하지 않고, **각 총서사항을 각각의 원괄호 안에** 기술한다. 서로 독립된 총서이므로 각각의 소속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

④ X: 전자책도 형태사항에 **특정자료종별과 수량을 기술한다**. 특정자료종별은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나타내므로 '전자책'으로 표시하고, 수량을 함께 적어 '전자책 1책'과 같이 기술한다. 자료특성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형태사항까지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